

포장업계 숙원문제 해결 중책 맡아

포장산업 진흥에 전력할 터

유현기 /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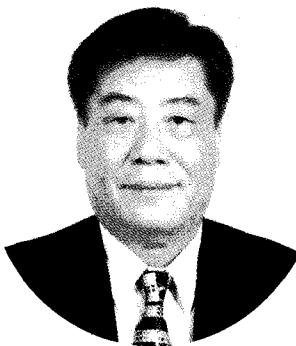
지난 8월 30일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정기총회를 갖고 유현기 신임원장을 선임했다.

최근 업계에서 연구원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능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로 유현기 원장을 선임했다.

유원장의 이번 선임은 과거 포장업계에서의 활동 경력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판으로 인력 부재 속 적절한 선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 포장업계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 속에 전 포장업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총회 때에도 사업의 구체화, 예산의 적절성 여부 등 대부분 사업에서 지적을 받아 운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연구원을 혁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원장의 활동은 평가대에 올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유현기 원장의 취임 소감과 앞으로 연구원을 이끌어갈 방향 등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 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소감은?

菲才한 본인이 分에 넘치는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35년간 포장업계에 활동을 하고 중소기업 운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살리고 초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포장개발연구원으로 가꾸신 전임 이대길 원장님의 운영지표를 이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포장개발연구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포장산업계 전반을 포용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평가는?

취임 후 개략적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13개 포장생산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가 참여하고 202명이나 되는 포장관련 대학교수, 포장전문가가 운집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은 포장산업진흥개발 5개년 계획(안)의 수립, 5대 포장재산업 실태 전수조사 및 발

전비전 전략수립, 21세기 포장산업 비전전략 대토론회 개최, 2000년도 포장산업 진흥개발 계획 수립,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환경 친화, 청정화 대책(안) 수립, 포장산업의 신지식 정보산업화 추진계획 수립, 고기능 신포장 기술 개발사업 추진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포장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한국포장개발원의 역할과 신임원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이 일천한지라 몇 사람 안되는 임직원이 일을 하다 보니 본원의 홍보가 부족해 정기 간행물로 등록한 'Packaging Vision' 이란 매체를 최우선적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 포장산업의 양적·질적 규모가 성장하고 있지만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포장업계의 대표기관 설립 또는 통폐합 문제에 대한 견해는?

포장은 단순한 상품의 보호 기능만이 목적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도록 패션화하는 것도 상품의 심리적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모두가 포장이 발휘하는 가치이며 가능입니다.

본원 조직상 핵심체를 이루고 있는 포장재별 14개 포장재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와 포장학계 교수님들, 포장업계 대표 여러분

과 혼연일체가 되어 포장산업 중흥을 펼쳐가겠습니다.

-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이외 신규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 된 사항이 있다면?

본원은 정부지정 포장기술개발전담기관으로 신기능, 뉴패턴 신포장 기술사업외에 포장산업 장·단기 비전설정, 포장산업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수출증대 포장개발·수출포장 전략산업화, 포장·물류표준화 모듈설정, 포장패션화, 포장국제학술행사, 포장인식도 제고, 종합포장시험검사소 설치, 포장인재육성·포장직업훈련원 설치, 포장 및 포장폐기물 환경규제 대응책 시행, 포장산업 국제협력 교류 및 서울국제포장박람회 개최, 포장의 날 제정 등 10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포장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포장시험검사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연구원의 주류 단체인 지류포장 단체들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정부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소액 부과를 통해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연구원의 인식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ko**

〈鎮〉